



2026. 8. 12 (수)

상승의 질이 좋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량, 거래대금이 축소됨에도 Top2 중심의 상승
- 6~7월 매수 사이드카와는 다른 성격의 8월 매수 사이드카
- 변동성이 유발했던 급락 이후 안정, 시장이 점차 바닥을 찾는 시그널로 해석

투자전략

Analyst 황수욱

soowook.hwang@meritz.co.kr

8월 12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3.7% 상승. 간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이 지수 상승을 견인. 장중 매수 사이드카 발동했는데, 8월 5일 이후 첫 매수 사이드카 발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ETF 출시 이후 KOSPI 변동성 확대. 변동성 지표인 VKOSPI는 6월 97pt까지 상승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음. 변동성 확대는 외국인의 한국 시장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봤음.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 6월 이후 반복되는 매수, 매도 사이드카는 주가 상승에도 격정거리였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피로감을 누적시켰음

8월 매수 사이드카는 이전과는 성격이 달라 보임. 6~7월과 비교할 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영향이 현저히 줄어든 모습.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일 부터 7월말까지 46거래일 중 26차례 사이드카 발동. 이 기간 사이드카 발동일 평균 국내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평균 거래대금은 8.7조원, 거래량은 4.6억주였음. 반면 8월 이후 사이드카 발동일(8월 5일, 6일, 12일)의 평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대금은 7,324조원, 거래량은 0.82억주로 각각 7월말 이전 대비 82%, 9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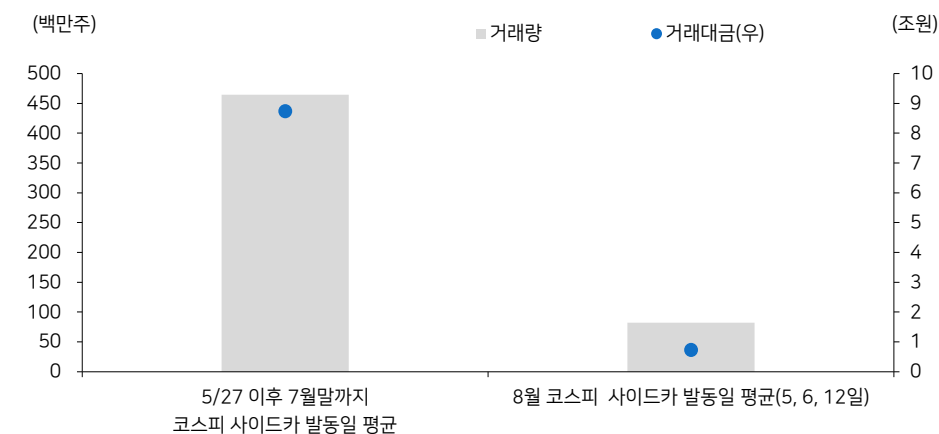
반도체 풀림을 유발한 것으로 해석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영향력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반도체 주도주 중심의 상승 탄력 확인. 레버리지 ETF 영향력이 축소되는 가운데 VKOSPI가 56pt까지 하락. 이 부분이 외국인 유입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8/12 KOSPI 외국인 순매수 2.84조원). 6~7월 피로한 성격의 매수 사이드카와는 다른 성격. 변동성이 유발했던 하락 이후 안정, 시장이 점차 바닥을 찾는 시그널로 해석

그림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과 VKOSPI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 및 거래량 비교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